

SWIFT Business Forums 2008

Korea report

2008년 8월

한국 연락처

황희택 이사(Heetaek Hwang)
스위프트 한국대표
heetaek.hwang@swift.com

이정길 이사(Brown Lee)
리저널 매니저
brown.lee@swift.com

행사개요

7월 16 ~ 17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참석자수:

Day 1: 136명

Day 2: 89명

SWIFT 파트너:

- Clearstream
- COMAS
- SIDE International

스위프트 비즈니스 현황

총 메시지:

- 622,781,628 메시지 (2008 누계)
- 일일 평균 메시지: 15,006,786 메시지
- 메시지 증가율: 22.20% (2008 누계)

현재 고객사: 8,385

아시아태평양시장의 조화로운 발전 아시아 금융 허브를 향한 한국의 야심찬 도전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의 주 무대는 서구였으나,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분산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고부가가치 기술과 부를 축적하며 세계 경제의 주요 당사자로 부각했고, 한국 또한 이웃 경제부국들과 어깨를 겨루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조, IT, 조선업 등 여러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은 타 분야에 비해 금융분야의 뒤처짐 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을 발판 삼아 고부가가치의 금융산업을 육성,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국 금융계의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 온 스위프트는 이제 한국 지사 설립으로 금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조력관계를 다져 나가하고자 한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시아 금융시장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이에, 2008 스위프트 서울 비즈니스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금융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스위프트가 어떤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금융 허브로서 한국의 미래

스위프트 서울 비즈니스포럼의 첫째 날인 16일 오전에는 스위프트 및 국내 파트너사에 관한 소개에 이어 '글로벌 지급결제, 자금관리, 공급체인금융 세션'이 마련되었다. 이어 오후에는 '유가증권 및 자산관리분야 세션'이라는 타이틀 하에 한국 및 세계 자본시장 전반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고, 아태지역 금융산업 성장 및 경쟁력을 주제로 총회가 이어졌다.

JPMorgan 자금부의 아시프 라자(Asif Raza) 아태지역 무역서비스 및 유통관리부문 최고 책임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무역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뱅킹 커뮤니티가 공급체인의 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급변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무역의 모든 프로세스와 banking 시스템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본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은행 조현준 부장은 국내외 계좌 통합관리, 온라인 실시간 FX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구성된 하나은행 트레이드 서비스의 특징 및 스위프트와의 연계를 소개했다.

이어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천성욱 부사장은 비현금 및 O/A 거래의 세계적인 증가세를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동기로 소개하며, 단일 banking 플랫폼을 구축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대응책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스위프트 서울 비즈니스 포럼 첫째 날

한국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계 전반에 걸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자통법의 발효와 함께 단일 금융기관이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복수의 금융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이제 한국에서도 거대 규모의 투자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이처럼 금융업계의 규제완화조치와 자통법의 시행은 한국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SC제일은행 증권부의 롭 에드워즈(Rob Edwards) 부사장은 고급 법조인력 및 금융인력 양성, 여성인력 활용, 생산성 향상의 문화 조성 등을 한국 금융업계를 위한 발전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금융미디어 그룹 블룸버그의 무수프 차우더리(Mousuf Chowdhury) 비즈니스 매니저는 자본시장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초래할 변화를 분석, 이에 대한 적절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시티은행의 양인용 수탁상품부장은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국내외 투자펀드의 작동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통해 자산관리분야의 미래를 조명했고, 유로클리어뱅크의 필립 드라구에(Philippe Dragnet)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상업부장은 시스템 통합과 표준도입을 통해 범유럽적인 단일 금융플랫폼을 구축한 유로클리어뱅크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그는 시스템 간 조화와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세션의 마지막 연사인 대신증권 송동근 본부장은 “한국 금융업계가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 및 질적인 측면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금융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

이번 스위프트 포럼의 총회는 아태지역 금융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JPMorgan의 카쓰린 밀러(Kathryn Miller) 상무이사 겸 아태지역 기술 최고 책임자는 한국의 금융허브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여러 국가들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녹아난 아시아 커뮤니티가 세계 금융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및 문화 측면에서 지역, 글로벌과의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순서에서 홍콩 재정국의 스탠리 찬(Stanley Chan) 금융인프라개발부 최고 책임자는 홍콩의 금융중심지 도약 성공 사례 및 현재 상황,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이재현 본부장은 uTradeHub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자무역 인프라의 우수성을 언급했고, 금융결제원의 김민제 부부장은 자통법 시행으로 가속화될 한국의 금융허브 추진을 골자로 포괄적인 강연과 함께, 스위프트의 아태지역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연사인 유로클리어뱅크의 제니퍼 히스필드리(Jennifer Heathfield-Lee) 본부장은 아태지역 펀드 및 증권산업의 성장에 따른 과제를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스위프트가 안전한 메세징 서비스로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JPMorgan 자금부의 아시프 라자(Asif Raza) 아태지역 무역서비스 및 유통관리부문 최고 책임자



스위프트 서울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스위프트, 자본시장 통합법과 조화롭게

둘째 날인 17일 오전 세션은 외환은행 권오훈 부장의 스위프트 유저 그룹 의장보고로 시작되었다. 권 의장은 올 연말로 예정된 스위프트 국내 사무소개소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스위프트의 아태지역 경제국, 특히 한국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권 의장은 국제유가 폭등, 원자재가격 상승, 자동법으로 초래될 금융업계의 무한경쟁시대 도래 등 한국 금융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스위프트는 자산관리 및 증권업계, 펀드 매니저 등 역내 스위프트 유저 그룹의 수를 점차 늘려가는 동시에 기업 고객들이 스위프트 유저 그룹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표준의 채택, TSU의 상업화, 2012년 Sibos의 서울 개최를 위한 노력 등 향후 유저그룹의 새로운 아젠다를 발표하며, 보고를 마쳤다.

둘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JP모건 제미슨 브라이언(Jamieson Bryan) 자금부 상무이사의 “표준: 획기적인 XML의 세계(The Brave New World of XML for Standards)” 주제강연이었다. XML 이해 및 XML의 기술인프라와 고객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한 그는 표준화와 관련된 최근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스위프트는 ISO15022와 호환가능한 ISO20022를 개발했다. 이는 공통의 표준을 산정하고 아시아 지역 금융서비스 분야의 조화에 기여할 것이며, 결제, 이동성, 비용감소 등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후 일정은 비즈니스 세션과 테크놀로지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연사들이 스위프트가 그들 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비즈니스 세션

클리어스트림 투자펀드 서비스부의 스탠리 푼(Stanley Poon)은 시장 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서 “펀드관리분야에는 여전히 스위프트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펀드거래 분야는 거래 내역 메세징을 위해 여전히 팩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추얼 펀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은행이 점차 늘어나고, 시장은 해마다 두 자리 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에릭 추아(Eric Chua) 스위프트 투자펀드솔루션 지역 대표는 금융 허브라는 동일한 목표를 상정했던 싱가포르 정부가 커뮤니티와 적절히 협력해 온 사례를 들며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총 세건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포문을 연 JP모건의 제이미 브라이언 자금부의 상무이사과 다니엘 손 와코비아 은행 글로벌 결제서비스 부문 상무가 E&I 솔루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다니엘 부사장은 한국 은행의 성장세가 인상적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은행들의 E&I서비스 채택을 독려했다. 그는 “E&I는 독보적인 견고성과 일관성, 고도의 자동화, 향상된 효율성 및 단위 별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겸비한 표준으로 기업들도 E&I의 채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실 HSBC 은행 자금관리 전무는 스위프트는 HSBC 은행의 핵심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스위프트가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로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점차 국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XML ISO20022는 많은 기업들이 틀림없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금결제 부문의 훌륭한 솔루션이라” 고 말했다.



스위프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한 파트너가 스위프트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비즈니스 포럼은 스위프트와 고객사, 파트너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

스위프트 링크

- [스위프트 솔루션](#)
- [스위프트 파트너](#)
- [사이보스\(Sibos\) 2008](#)

오후 세션의 하이라이트인 이용자들의 사례 발표의 마지막을 장식한 외환은행의 강신원 차장은 “스위프트 TSU-기회가 오고 있다(Opportunities are coming)”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수출입 기업들과의 거래가 많은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며 체득한 경험을 공유한 그는 “대기업은 ERP를 이용하여 무역대금을 결제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 때문에 ERP 사용이 쉽지 않다. 기존의 기업과 은행과의 채널 즉, EDI와 인터넷 뱅킹 등에 대한 변경 없이 무역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TSU는 중소기업들에 매우 적합하며, 기업들은 국제 교역에서 TSU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테크놀로지 세션

비즈니스 세션과 병행하여 개최된 테크놀로지 세션은 스위프트 얼라이언스(SWIFT Alliance), 스위프트 트레이드서비스유틸리티(SWIFT TSU), 스위프트 관계관리애플리케이션(RMA) 등 스위프트가 제공하는 각종 솔루션에 관한 심층적인 소개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소규모 트래픽 전용 솔루션 얼라이언스라이트(AllianceLite)를 소개했고, 스위프트 웹 페이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고객 대상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스위프트 비즈니스 포럼 일정

- 인도 뭄바이 - 2008년 9월 18 ~ 19일

자세한 정보는 스위프트 홈페이지(www.swift.com)의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